

## 개인과 국가와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때의 징조

롬1:18-32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부정 선거 문제, 여러 증거들, 주류 언론들의 문제, 빅테크의 문제, 정치인들의 문제, 음모론까지 등장, 여러 사람들 현혹되어 미혹됨, 결국 1월 20일에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였다. 나를 비롯해서 한국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대다수 복음주의자들 트럼프지지

그러나 주류 언론 등에 의해 트럼프는 반미치광이, 정신병자 취급당함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정리하려고 한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의 행실이 좋다거나 그가 의인이라서 지지하지 않는다. 모두 죄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과거 7-80년 행적을 보니 트럼프가 개인의 자유, 사유 재산권 보호, 국가의 통제 제한,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하나님을 존중함 등 면에서 바이든보다 낫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런 가치를 위해 투표하고 지지한 것이지 결코 트럼프 맹신이 아니다. 이제 1월 20일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선정을 펴는 대통령이 될 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이다.

이번 미국 사태를 보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나는 맥아더 목사의 설교를 자주 듣게 되었다.

그분을 다시 보는 귀한 계기를 가졌다. 목사가 누구이며 무엇 하는 사람인지  
시간이 나면 그의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다. 그 전에는 그의 복음적인 설교에 매료되어 보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로는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듣고 있다.  
그는 지금 80세, 증손자까지 보았다. 50년 이상 미국 그레이스 교회에서 목회함, 전설이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예배 불가능, 교회 폐쇄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왔다.

수십 건의 고소 고발 사건, 악성 루머, 인신공격, 주차장 폐쇄 명령 모든 것 대처하려니 극도의 피로  
결국 그는 12월 말부터 거의 3-4주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 아파서 드러누웠다.

또 악성 루머: 코비드에 걸렸다. 등등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 주 1월 17일에 예배에 나와 설교하였다. 목소리가 쉰 상태

지난주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지난 10개월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소회를 드러내는 시간  
만 80세 목사가 지금도 1시간 동안 서서 설교하는 것을 보며 경이감을 가졌다.

그의 말: 지금까지 목회 5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10개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지난 10개월 동안 수천 명의 성도들이 붙어났다. 교회에 못 가니 저기로 피신가야겠다. Grace  
refuge

지난 10개월 예배 시간에 나쁜 버릇이 생겼다. 현금 바구니를 못 돌림,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의  
현금은 본인이 목회해 온 50년의 어떤 해보다 더 많이 들어옴

아무도 감옥, 병원 등을 방문하지 않으니 본인 교회가 다 가서 방문, 수만 권의 성경을 무료로 줌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 식사 제공, 지난해 안티파 폭동, 본인 교회 주차장을 경찰들이 쓰도록  
허용함, 그 많은 경찰들 식사 대접, 직원이 240명, 99명의 선교사 가족 지원 등,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심지어 이번 3월에는 3000여 명의 목사들 학교 모임 주최,  
모든 호텔들이 그 모임을 위해 개방,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의 설교를 들으며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21세기의 사도행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목사와 교회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다.

우리와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실력,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또 우리의 목표는 조금 다르다,

일단 지금 우리는 올바른 성경 번역 보급이 최우선 순위, 나나 교회가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케스티 판 성경을 내야 한다. 지난 6년을 이 일을

위해 헌신하였다. 올바른 성정이 있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  
다만 나는 맥아더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진 목사가 나와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경 작업 끝난 이후에 나와 교회가 심지어 사회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레이스 레퓨지, 채리티 레퓨지

실제로 물리적인 피난처는 제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피난처는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나와는 다른 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맥아더 목사님의 믿음의 싸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는 미국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에 결국 바이든이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미국 사람들이 사탄의 길을 선택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하였다.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6년 8월 20일 그는 롬1:18-32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국가를 버리실  
 때의 징조”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When God abandons a nation  
 abandon, 포기하다. 방치하다. 내버려두다.

로마서 1장의 이 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면 여러 번 읽고 몇 번 설교를 들었을 때 매우 유명한  
 말씀이다. 나는 맥아더의 이 설교를 들으며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종말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다. 즉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와 세상에 자신의 뜨거운 진노를 내뿜는 때에 나타는 공통적인 징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국가와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의 징조>, 개인, 국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교하려 한다.

###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말씀 성정이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읽히는 이유: 우리의 삶과 시대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롬1장이 대표적인 사례  
 18절: 하나님의 진노,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토픽

wrath: 뜨거운 분노, anger와는 질이 다르다. 총 194회, 주로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 표현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잘 표현된 때: 노아의 때, 8명 배고 다 익사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의 두 딸 빼고 다 사망

앞으로 이 땅에 닥칠 무서운 7년 환난기, 특별히 후반분 3년 반, 아마 전체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죽음

자연 재해의 진노: 태풍, 지진, 홍수 등

롬1:18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포기하고 방치하시는 진노

참고 참으며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음을 보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진노

구약 시대 삼손, 가장 강력한 사람, 그러나 음행, 방종의 길, 16장 창녀 들릴라의 손에 빠져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리고는 그녀가 머리를 민 뒤에 결국 원수들에게 사로잡힘. 16:21 그 결과 멧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함, 이것은 소나 노새가 하는 일, 하나님이 참고 참다 포기하시니 사람이 노새가  
 되고 말

호4:6, 17,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그대로 버려두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죄들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능해진다.

삼손, 과거의 이스라엘(바빌론 포로생활),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방치해 두시면 악을 제지하는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난다.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짐승의 일, 마귀의 일, 창6:5-6

롬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들의 선택과 죄악에 그대로 방치할 때의 징조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

## 하나님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버릴 때의 징조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디에 넘겨주신다. 내주신다. give up, deliver, 배달하다.

24절: 부정함에 내주신다. 더러운 것에 내주신다. 마음대로 더럽게 살라고 내버려두신다.

26절: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신다. 여자들의 동성애

28: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 국가, 사회, 세상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포기하고 내버려주시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24절: 그러므로, 18절의 하나님의 진노가 닥친다. 닥치는 이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 둔다. 감옥에 가둔다. 알면서도(18), 그 결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19).

(\* ) 그냥 생기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것을 안다. 그런데 인간은 돌덩어리에서 그냥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19).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변명할 수 없다(20).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21).

그 결과 자신의 신을 창조해 낸다(22-23). 창조자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신이 될 수 있다.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 신들 창조

24절의 '그러므로'는 '사람들의 이런 행위 때문에'의 뜻이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내주신다.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긴다.

여기서는 성적인 죄악, 개인이든, 국가든 세상이든 팽배해진다.

쉽게 말해 온 세상이 포르노 세상이 된다. 너무 쉽게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세상이 된다.

이것을 보통 성 혁명이라고 말한다. 1950년대 이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면 히피 운동 등에 의해 성 혁명, 각종 음란 잡지

그러다가 드디어 인터넷 세상, 심지어 매일 보는 신문에도 반라의 여성 사진 그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세상, 서서히 중독되어 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미국, 한국 등 온 세상의 풍조, 개인, 국가, 세상에 닥친 현실이다.

성적인 죄의 팽배, 만연, 우리 눈으로 본다.

### 2.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방치로 넘어간다. 26절

이런 까닭에(for this reason): 수치스러운 애정, 여자들의 동성애

사실 여자들은 동성애에 빠지기가 쉽지 않다. 여자에게는 모성애가 있다. 그런데 사회가 최악의 상태가 되면 여자들도 동성애에 빠지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기독교계에까지 파고든다.

NIV 편집위원회의 몰렌코트 박사(Virginia Mollencott, 1932-2020)는 “동성연애(Lesbianism)는 항상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왔다.”고 자랑스레 말한다(1991년 6월호 성공회 「위트니스」지). 그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저술한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은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NIV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남자들의 동성애(27), 남자들의 경우 자기 몸에 진노의 보응을 받는다. 에이즈 같은 질병

### 3. 마지막 단계는 28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신다. 여기서 생각은 mind, 정신세계가 완전히 부패한다. 옳고 그른 것을 모른다. 완전히 짐승처럼 된다, 삼손처럼

타락하는 단계: 마음, 몸, 정신, 정신 즉 이성 체계가 마비된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28절에 있듯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한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사람들의 최악의 리스트(29-31)

이들의 상태(32), 즉 동성애. 낙태한다고 하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고 하는 사회가 된다.

### 현시대의 상태

하나님이 개인, 국가, 세상을 포기하시면: 성적 타락, 동성애, 정신상태 마비, 삼손처럼 노새가 된다.

요즘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전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방치하시는 진노이다.

이런 진노는 개인, 국가, 세상에 다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소돔 성을 보라(창19:4).

국가가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치, 결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한다.

왜? 사고 체계의 붕괴가 와서, 바르게 생각할 줄을 모른다. 이것이 지금 한국, 미국, 전 세계의 문제, 이대로 가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미국은 사라지게 된다.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삼손처럼 다 빼앗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왔는지 바르게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노아의 시대, 룯의 시대

노아 당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나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룯 다시, 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예레미야 포함 수십 명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개인과 국가가 하나님을 버리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성 혁명, 온 세상이 음란물로 넘쳐 난다. 동성애가 극성을 부린다.

사람들의 정신 체계의 붕괴가 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미국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세상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회개하고 올바른 성경 말씀 선택, 올바른 교회 선택(목사와 성도 선택)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은 바이블 벨리버들의 모임 선택

하나님께 호소하며 개인과 국가가 회개해야 한다.

그래도 정신체계가 정상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대하7: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한다.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를 배워서 성장해야 한다.

개인과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